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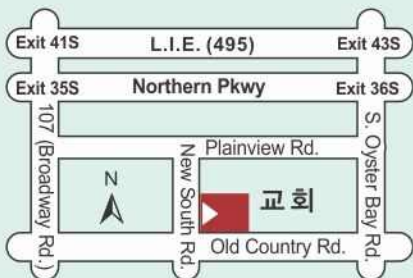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 회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 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 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 당
	영 어 예배	오후 1:00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 당
수 요 예배	오후 8:30	본 당	
새 벽 기도 회	오전 5:30 (월~토)	본 당	
목 장 모 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 자 훈 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 일 학 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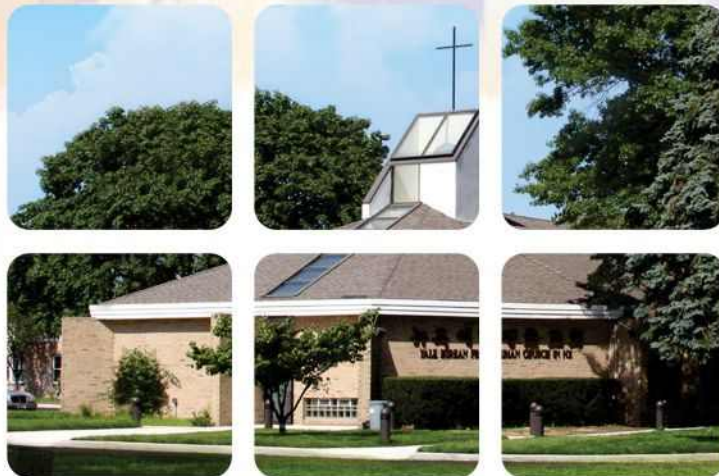


해외한인장로회

뉴욕 예일 장로 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 중 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

Vision 2021 - 헬로십 마치

예 배 시 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 도 자	김중훈목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다 같 이		
찬 송 Hymn	389장, 191장		
기 도 Prayer	박진두집사	유학준장로	윤희주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사(Isa) 61:1-11		
찬 양 Anthem	할렐루야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 씬 Sermon	회복 김중훈목사		
찬 송 Hymn	630장		
봉 헌 Offering	다 같 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찬 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기도	1부 이동윤집사	2부 김근태장로	3부 정수영장로
방 송 설 교	KRB FM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성령충만하고 은혜로운 임직감사예배를 위해

지난주일 설교요약

본문: 사(Isa) 55:1-13

제목: 하나님의 초청

이사야 55장은 '초청의 장'이란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저는 초청이라면 니카라과 선교대회 집회에서 초청하는 순간을 떠올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초청에 응하면 너무 기쁘지만 초청에도 반응이 없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초청의 대상(1-3절)

- 목마른 자. 우물가의 여인처럼 무엇인가 갈급한 자.
- 돈 없는 자. 상점이나 식당은 돈 없는 사람은 사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돈 없는 자가 포도주와 젖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대신하여 돈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값을 지불하셨습니다(사 53:5).
- 헛수고 하는 자.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자.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었습니다(렘 2:13). 그러나 나아와 들으면 삽니다.

2. 초청의 시기(6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고후 6:2).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합니다. 결실의 계절, 팬데믹 속에서도 유대인 회당구입으로 지경을 넓혀 주신 일, 많은 일꾼을 세우신 일 등은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부흥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초청의 선결 조건(7절)

회개가 선결 조건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가야 합니다.

4.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8-11절)

-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마치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와서 썩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줌과 같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룹니다.
-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의 구원입니다(요 3:16).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닮는 것입니다(레 19:2; 벰전 1:16). 잡새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사 40:31).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골 1:24; 계 2:10).

5. 초청에 응답하는 자의 축복(13절)

- 가시나무 대신 고급 건축 재료인 잣나무가 됩니다. 찔레 대신 향수의 원료인 화석류가 됩니다.
- 하나님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성도가 됩니다.
-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찬송가 582장).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 오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목장이야기

예일찬양단

지난주일 목사님께서 뉴저지 선한말씀교회 전교우 신앙수련회 강사로 초청받으시면서, 찬양팀은 Buy one get one Plus의 Plus로 참여했습니다. 집회의 시작은 저녁 8시였지만 일찌감치 모여 악기를 싣고 소풍가는 마음으로 라마나웃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Labor Day 주말이라 차는 무지 막혔지만 그동안 못 나눈 대화들을 차안에서 나누며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손수 만드신 손권사님의 수정과와 간식들을 먹으며 가서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해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을 드렸더니 선한말씀교회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희의 섬김에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내기 아쉽다고 찬양팀이 함께 교인들과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자고 하셨습니다. 같은 교인은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찬양팀은 매주 화요일마다 연습하며 섬겼을 뿐인데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연습시간에 이번 집회에 대한 feedback을 나누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섬긴 일은 적는데 받은 은혜는 많았다고 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인도를 위해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예배

온라인 예배 가이드

*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던 때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1.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
2. 예배 전에 씻고 아침을 먹는다. 식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3. 교회 갈 때처럼 예배에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옷을 대충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십일조 및 헌금을 준비한다.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우편봉투에 넣어 예배시간에 드린다. Venmo를 사용하는 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헌금시간에 맞추어 헌금한다. 주중에 교회에 들러서 헌금하실 분들은 부목사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는다.
5. 예배시간(2부 9시 30분, 3부 11시)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한다.
<http://www.yalechurch.org/live-stream-sermon/>
6. 동시통역: 3부 예배(11시)에 동시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Join Zoom Meeting: Meeting ID: 871 2789 7718 Passcode: 861254
<https://us02web.zoom.us/j/87127897718?pwd=dTFkMG1XN3E2MnBkUTMyUUJFdTBsZz09>
7. 다음을 숙지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 a. 발을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예배당에서처럼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 b. 아이들은 부모 옆에 앉고,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녀들에게 참을성 있게 앉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 c. 설교 및 찬양 시간에 서로 질문하는 것이나 잡담은 피한다.
 - d.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동일하게 일어나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 e.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여한다.
 - f. 예배 후에 주어지는 적용질문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9월 15일

기 도 천 매 자 권 사
말 씬 이동홍선교사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 씬 김 중 훈 목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9월 19일 주일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이동운집사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2부	김근태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3부	정수영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9월 22일 수요기도	임직자 헌신예배	예배부

예배

1.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2.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요일예배 설교: 이동홍선교사(니카라과)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뉴욕 주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6/27일부터 본당에 왔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만,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①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②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③수요일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④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2. 제 65회 뉴욕노회: 9/13(월) 오후 5시, 본 교회
3. 뉴욕노회 교육부 주관 세미나: 9/17(금) 오전 10-12시, 뉴욕 넘치는 교회
*덴버신학교 정성욱교수: "만인 선교사론과 만인 신학자론"

4. 제자훈련 안내

제자훈련	기간
제 54기 제자훈련 101	9월 14일(화) - 12월 21일(화)
제 31기 제자훈련 201	9월 21일(화) - 12월 14일(화)

5. 차량부로 섬겨 주실 분을 찾습니다(담당: 김용호장로).

6.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과 친교(식사)기도

- 강 단 꽃: 박성우집사&김영애권사(결혼기념)
- 사랑의식탁: 김종훈목사(생일감사)

새가족

-김영숙권사 (사랑선교회, Syosset, NY 11791 인도:박미성집사)

행사예고

-9/14-12/21	제 54기 제자훈련 101
-9/19	덴버신학교 정성욱목사(교수) 2, 3부 설교
-9/21-12/14	제 31기 제자훈련 201
-9/22(수)	임직자 헌신예배
-9/26	임직감사예배 오후 5시

QT본문

요일	일(12)	월(13)	화(14)	수(15)	목(16)	금(17)	토(18)
본문	갈(Gal) 5:16-26	갈(Gal) 6:1-10	갈(Gal) 6:11-18	출(Exod) 15:1-21	출(Exod) 15:22-27	출(Exod) 16:1-21	출(Exod) 16:22-36

최근 미국에서는 대조적인 얼굴을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승소 사건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LA 선밸리에 위치한 복음주의교회로서 존 맥아더 목사가 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중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가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하자 존 맥아더 목사와 성도들은 카운티의 명령에 불복하고 3,400명 석 규모의 예배당에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영적 건강에 대해 성인으로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을 닫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운티로 부터 고소를 당한 이 교회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예배를 제한한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카운티와 주 정부가 교회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각각 4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합의명령을 내렸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는 교회는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알리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하며 이번 사건을 교회의 기념비적 승리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The First Amendment)를 기록합니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할 수 없다."

둘째는 하버드대학교 교목실장 임명 건입니다.

하버드대학교가 교목실장으로 무신론자를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인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붙인 하버드대학교가 무신론자를 교목실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학교의 정신적인 뿌리와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버드대학교는 청교도들이 1600년대 중반에 뉴잉글랜드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으나 이렇게 무신론자가 교목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었기에 기독교계에서는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측은 새로 임명된 교목실장인 엡스타인이 "캠퍼스에서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및 기타 종교 공동체를 이끄는 40명의 대학 성직자들을 감독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두 얼굴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흐름입니다. 마치 한 몸에서 두 얼굴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순된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순수한 하나님 신앙의 열망의 기초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그 기초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면 오늘의 무신론적 흐름은 미국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 분명해 집니다. 작고 무익한 종이지만 오늘도 미국에 새로운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